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박물관·미술관 협업 바람

미술관 투어 스탬프 찍고 공동 기획전까지

김창열·현대미술관에 이어 서귀포 3개 공립미술관도 공동기획전·투어 등 계획
도박물관은 제주목관아 연계 원도심 살리려는 통합권 계획

이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시도립 김창열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의 '미술관 스탬프 투어'에 이복이 쏠리고 있다. 서로 이웃하고 있지만 소속이 다른 두 공립미술관이 경계를 넘어 한뜻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김창열미술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는 스탬프 투어는 두 미술관이 공생하며 의지를 모은 결과다. 두 박물관을 관람하면 아트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상호 관람객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 연계 '미술관 주간' 운영
구상=근래까지 박물관을 운영하는 두 공립 시설이 자료 이관 문제로 갈등했던 점을 떠올리면 이번 사례는 신선하다. 도내 공립박물관·미술관이 올해 이들과 협업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증품을 이동 전시했던 서귀포시 지역 공립미술관들이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고 있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도 원도심에 자리잡은 유적지와 상호 관람권 합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도심권에는 3개의 공립 미술관이 있다. 기당미술관, 이중섭 미술관, 소암기념관으로 걸어서 이동해도 20분 남짓이면 닿는 거리에 위치했다.
작가 미술관을 중심으로 근거리 3개의 공립미술관을 보유한 서귀포시는 '미술관 도시'를 표방하며 무료 관람 이벤트를 시행해왔고 앞서 2018년에는 소암기념관에서 개관 10

주년을 기념해 '소암기념관으로 마실오다'란 이름 아래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등 공·사립미술관 소장품을 전시한 일이 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7월쯤 공동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3개 미술관 별로 소장품 등을 활용해 정해진 하나의 주제를 구현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특별전 기간에 '서귀포 미술관 주간'을 지정해 관련 행사를 여는 방안도 세웠다. 무료 관람이 시행되는 소암기념관을 포함 3개 미술관을 모두 돌아본 관람객에게 아트상품을 제공하는 투어도 구상 중이다.
▶학예적 역량 강화 워크숍 동력
기당=도심에 자리잡은 제주시민속자연사박물관은 원도심 살리기를 취지로 제주목관아와 연계한 관람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신임 노정래 관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으로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관람객이 조금이라도 더 원도심권에 머무르며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같은 협업은 지난해 처음 진행된 제주지역 학예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연결되며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다. 학예사 소통 목적도 있는 워크숍이어서 박물관·미술관 인력들이 정례적으로 만나다면 아이디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인구 대비 박물관·미술관이 다수 흩어져 있고 공립 시설도 적지 않지만 통합 관람권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복잡한 절차를 이유로 든다. 다른 지역에서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곳이 있다. 이는 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제주 지역도 도민들이 더 많은 박물관·미술관 체험과 관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선희기자



탐라국립춘국의 시작을 알리는 춘등걸기. 사진=제주민예총 제공

경자년 새봄이 비로소 깨어납니다

제주민예총 탐라국립춘국
2월 1~4일 관덕정 일대서
이달 27일부터 입춘맞이
그림책·가이드북 첫 제작
목관아 건물 내부도 활용



입춘맞이 맞춰 제작된 그림책 표지.

경자년(庚子年) 새봄을 깨우는 축제가 제주시 원도심에서 펼쳐진다. 다가오는 설날이 지나면 곧바로 축제 분위기가 지펴질 '2020 탐라국립춘국'이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민예총(이사장 이종형)이 주관하는 탐라국립춘국은 탐라시대부터 있었다는 입춘맞이 행사가 제주중앙지하상가에서 입춘 걸개그림 그리기, 기예 입춘등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은 축제장에 걸린다. 2월 1일에는 관덕정 마당에서 낭송회, 춘등 걸기 등이 이루어진다.
2월 2~4일에는 제주목관아와 관덕정 일대에서 거리극, 열림극, 입춘국이 잇따른다. 첫날 거리극은 오일장, 공항, 향만 등을 도는 춘경문장을 시작으로 제주시 지역 23개 민속보존회가 주도하는 마을거리극, 입춘거리극, 입춘취호, 광장거리극 등으로 꾸민다. 2월 3일 열림극은 성안순력, 입춘만담, 입춘극장, 피나 짚을 이용한 주쟁이(주저리) 시연, 칠성비빔, 제주도립무용단 등이 출연하는 창작극 한마당 순으로 진행된다. 축제 마지

막 일정한 입춘날 입춘국은 제주큰굿 보존회가 집전을 맡아 초감제, 도역막음, 막푸다시 등을 이어간다. 세경놀이, 낭송놀이, 입춘탈놀이 등 입춘국의 전승 장면도 볼 수 있다.
축제 기간 소원지 쓰기, 궁청 열명 입춘국을 오늘날에 맞게 되살려낸 축제다. 제주민예총을 중심으로 제주의 예술인들이 1999년 제주시와 손을 잡고 복원한 이래 새봄을 알리는 한 해의 첫 축제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
스물두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우리가 봄이 되는 날'을 주제로 이달 27일부터 입춘날인 2월 4일까지 계속된다. 1월 27~31일에는 입춘맞이 행사로 제주중앙지하상가에서 입춘 걸개그림 그리기, 기예 입춘등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은 축제장에 걸린다. 2월 1일에는 관덕정 마당에서 낭송회, 춘등 걸기 등이 이루어진다.
2월 2~4일에는 제주목관아와 관덕정 일대에서 거리극, 열림극, 입춘국이 잇따른다. 첫날 거리극은 오일장, 공항, 향만 등을 도는 춘경문장을 시작으로 제주시 지역 23개 민속보존회가 주도하는 마을거리극, 입춘거리극, 입춘취호, 광장거리극 등으로 꾸민다. 2월 3일 열림극은 성안순력, 입춘만담, 입춘극장, 피나 짚을 이용한 주쟁이(주저리) 시연, 칠성비빔, 제주도립무용단 등이 출연하는 창작극 한마당 순으로 진행된다. 축제 마지

제주섬 품은 콘텐츠 문화상품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7종 상품 개발·홍보 지원

제주 문화콘텐츠가 문화상품으로 다시 살아났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2019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총 7개의 상품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문화상품은 제주 자연문화지형 종이접기(드론오렌지), 제주 힐링스토리 그래픽 노블(우리나비), 제주 해녀복 사이클링 소품(코헬체), 스토리즈 활용 팬시 상품(시와월드), 제주도 메모리얼 향수

10종(원더모먼트), 제주 전복을 활용한 펜던트(낮잠나무), 제주 랜드마크 스티커아트 카드(나다)다. 이 중에서 그래픽 노블 '다시오름'은 초판이 모두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자연문화지형 종이접기 상품은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현재 한라수목원에 입점 판매되고 있다. 해녀복 업사이클링 상품을 제작한 코헬체는 영국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단순 제작 지원이 아니라 개발된 상품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별도 홍보·마케팅도 지원했다.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제주 로컬 잡지인 (i)in을 통해



제주 자연문화지형 종이접기.

알려왔고 문화공간 '세계생활'에 팝업스토어를 열어 홍보 지원에 나섰다. 제주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곳과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2020년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제작지원사업은 3월 중에 관련 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문의 064)735-0628.
전선희기자

의 경험 공유, 청소년 대상 창작공작 메이커 스페이스도 운영한다.
류도열 관장은 "지역민들의 소통과 문화공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도서관 기반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10-8647.
전선희기자

토요일엔 도서관 찾아 인문학 콘서트

한라도서관 월 1회 운영
완독의 경험 공유 시간도

제주도 대표 도서관인 한라도서관(관장 류도열)이 다음달부터 월 1회 토요일 인문학 콘서트를 펼치는 등 연

중 책이 있는 제주를 이끌어간다.
토요일 인문학콘서트는 총 11회에 걸쳐 마련된다. 일정별 강사는 ▷2월 15일=김재천(EBS 정책기획부장) ▷3월 7일=최수일(수학교육연구소장) ▷4월 18일=박시백(시사만화가) ▷5월 16일=김용규(행복숲 공동체

대표) ▷6월 27일=정현채(한국죽음학회 이사) ▷7월 18일=김태권(작가) ▷8월 22일=박재원(뇌교육전문가) ▷9월 26일=박승훈(작가) ▷10월 24일=구수환(KBS 다큐멘터리국 부장) ▷11월 14일=김승일(작가) ▷12월 12일=박순찬(시사만화가)씨를 초청할 예정이다.
한라도서관은 주2회 제주어 보전 전문가 양성 교육도 이어간다. 완독

의 경험 공유, 청소년 대상 창작공작 메이커 스페이스도 운영한다.
류도열 관장은 "지역민들의 소통과 문화공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도서관 기반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10-8647.
전선희기자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회장 강철만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자동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통기성 (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특징: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용도: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타일면, 벽돌면, 스톤면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오양원, 타일면: 이도아쿠아빌딩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워터스틸라 12차, 미건빌라

자외선에 쬐(부식)아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 100% 스텐연통 설치
-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초천면 대흘리 가정집 설치

- 초기점화 30초내
-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물 : 녹/외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침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풀논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